

기획연재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6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생활복지 및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커리큘럼
- ⑤ 학생선발 시스템
- ⑥ 대학원 조직문화

등록금에 허리휘는 대학원생, 장학수혜는 10개 중 1개

〈한국장학재단 기준〉

연재기획② : 장학제도

최승우 기자 dotoril4@khu.ac.kr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액은 학기당 578만 원이다. 우리학교 학부 등록금액의 평균 382만원에 비해 약 1.5배 높다. 대학원 등록금이 비싼 것은 우리학교만의 일은 아니다.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1.45 배)·고려대(1.46배)·한양대(1.34배)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 정부는 학부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장학금1유형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상승 억제 및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말 그대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교내장학금을 전년대비 늘리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급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가 시에도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학부등록금은 평균적으로 소폭 인하되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 10개 장학금 중 대학원생 수혜대상 1개 뿐

대학원생은 이런 흐름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신규장학생을 선발하는 10개 장학금 중 대학원생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국가연구장학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선발을 중단해 현재는 인문계열 대학원생만 수혜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국가차원의 지원이 적다는 것은 대학원생이 교내장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학교 대학원의 경우 1인당 교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439만 원이다. 이는 등록금의 42.7% 수준으로 연세대 34.7%, 성균관대 28.5%, 한양대 26.4% 등에 비해 높다. 그러나 장학금이 내실까지 갖췄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우리학교 일반



〈2013학년도 일반대학원 장학금 수혜현황〉

	재학생(A)	교내외 장학금액(B)	재학생1인당 장학금(C=B/A)
경희대	3,289명	17억2천만원	524만원
고려대	4,927명	26억2천만원	532만원
성균관대	4,307명	25억5천만원	601만원
연세대	6,113명	28억9천만원	474만원
중앙대	2,820명	14억원	495만원
한양대	3,825명	14억3천만원	373만원

※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원의 교내장학 중 46.6%가 '근로장학'이다. 조교활동을 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절반 수준인 것이다.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이라는 이름보다 '급여'라는 이름이 더 맞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조교업무가 전공과 연관될 가능성도 적다. 우리학교의 조교는 크게 3가지로, 학교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학사조교와 교수 연구를 돋는 RA(Research Assistance)조교, 교원의 수업을 보조하는 TA(Teaching Assistance)조교로 나뉜다. 이 중 학사조교는 전공과 상관없이 단순히 학교부서나 단과대학 내에서 사무직 근로자처럼 근무하게 된다. 또한 TA조교 역시 수업보조라는 역할이지만, 많은 단과대학에서 학과실을 지키며 잔심부름하는 수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조교제도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경우 대학원생에게 학교 행정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츠쿠바대학 교육추진과 카와즈라 과장은 "사무부서의 업무를 대학원생에게 맡기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된 조교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500만 원의 조교장학금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32시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4일 동안 근무해야 한다. 즉, 평일 중 온전히 연구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조교 장학금 시급 환산 시 6,010원 ... 최저임금보다 130원 높은 수준

학부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단 하루 만으로 수업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진홍 회장은 "개인의 창의적인 연구 시간도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주어진 수업도 다 못 들을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 우리학교 조교제도와는 다르게 츠쿠바대학의 조교제도는 조교업무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 최대 5시간 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카와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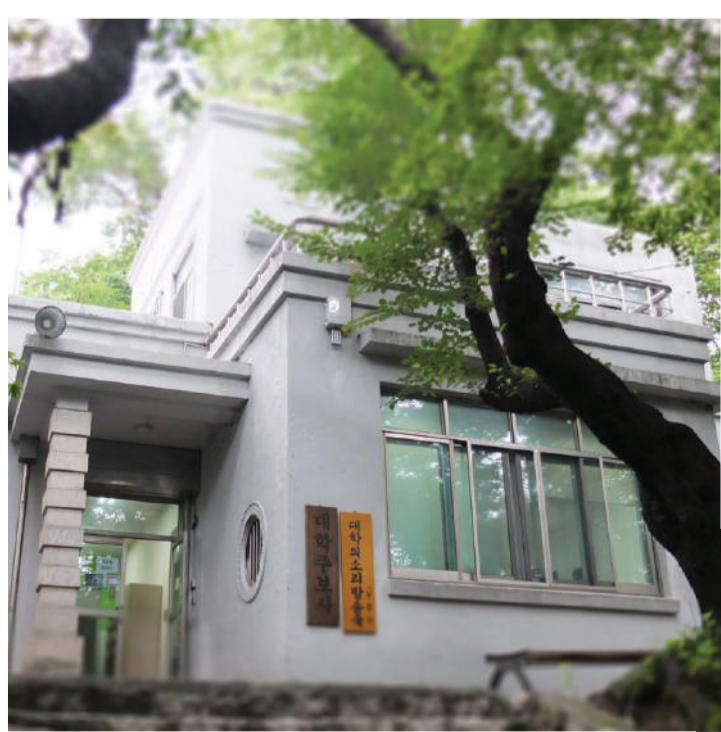
과장은 "학생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대학원 김준현 행정실장은 "원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강도나 조교배정에 대해 각 부서와 교무과에 부탁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조교선발·관리의 권한이 대학원에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교는 한 학기(6개월, 26주)를 기준으로 총 832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010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인 5,880원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7.1%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경우 2년 후에는 조교장학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만큼 낮은 임금이다.

현재 대학원은 조교업무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장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실장은 "산학협력단이나 BK21같은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 중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런 금액이 학교회계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학공시자료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대비 높은 등록금에 비해, 국가장학이라는 완충장치가 없어 학부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조교업무가 대학원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대학원생들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진 대학원생들이 과연 대학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대학원생 장학, 조교제도의 개선이 필요 한 시점이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5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5.07.03~2015.07.30,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9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5.03.16~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내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c.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